

1/27/19

설교 제목: 참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영생을 얻자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요한복음 4 장 1-24 절

- (요 4:1)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절관주** 요 3:22
- (요 4:2)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 (요 4:3)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 (요 4:4)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 (요 4: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절관주** 창 33:19, 수 24:32
- (요 4: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 (요 4: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 (요 4: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 (요 4: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 (요 4: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 (요 4:11)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 (요 4: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 (요 4: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 (요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 (요 4:15)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절관주** 요 6:34

- (요 4:16)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 (요 4:17)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 (요 4:18)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 (요 4:19)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 (요 4: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 (요 4:21)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 (요 4: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 (요 4: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절관주** 롬 8:4, 빌 3:3
-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요 4:1)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요 4:2)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본 절에서 사도 요한이 유대 지도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이라고 한 것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 거의 모두가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AD 70 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면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고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 지도자 자리를 독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세례 요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다는 사실을 들은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아직 그들과 충돌을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바리새인들이나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길을 택해 가셨습니다.

(요 4:3)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요 4:4)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빠른 길을 마다하고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 들어오는 먼 길을 택해 다녔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사마리아 지역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북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BC 722 년 앗수르가 침략해 점령하고 이방인들을 이곳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지역에 이주해 들어 오게 된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통혼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지켜지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방 종교와 혼합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모를리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걱정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신 것입니다.

거기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한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버림받고 소외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요 4: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요 4: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여섯 시는 유대식으로 정오입니다.

정오가 되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고 예수님은 피곤하신지라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요 4: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오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요 4: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보통 여자들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햇볕이 찜찜 내리 쏘이는 한 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아마도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에 다른 여인네들의 눈을 피해 이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마침 예수님이 혼자 계셨던지라 이 여인은 예수님과 좀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요 4: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사마리아 여인의 대꾸에 예수님은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요 4: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일시적인 목마름을 충족시켜줄 육적인 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영적인 물로
대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그렇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여인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요 4:11)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요 4: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님이 영적인 물에 대해 말씀하셨으나 수가 여인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육적인 물만을 생각했고 예수님이 네가 구하였더라면 내가 네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라고 하자 그럼 야곱보다 더 좋은 물을 주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더 이 여인이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 4: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요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 눈 앞에 있는 야곱 우물의 물과 당신이 주는 물을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통해 영생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후에 7 장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 7: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 7: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우리로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인은 당장 그 물을 얻어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직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자신 앞에 있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요 4:15)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꾸십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남편을 불러 오라고 하십니다.

(요 4:16)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요 4:17)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요 4:18)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남편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고 지금도 가정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비로소 이 여인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분이 어떤 분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남편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고 지금도 가정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어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 당신의 메시아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이가 선지자라는 확신이 들자 예배에 대해 평소에 자신이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을 묻습니다.

그것은 예배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요 4:19)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요 4: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옳은지를 묻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평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찾아 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참 선지자를 만났다 싶으니 평소부터 의문을 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에 대해 갈급해 묻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 참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 4:21)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 4: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요 4: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요한 복음 전체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와 형식을 중요시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장소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과 예배 대상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에서 잘 짜여진 순서에 의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예배는 우리의 경건함과 진실함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드디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구세주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당장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외쳐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 여인은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꾸어도 육적 허기와 갈증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것들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허영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과 위로를 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르고 갈급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수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수가 여인과 같이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받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